

“아이폰으로도 ‘무한도전’ 본방 사수?”

APP

지금까지 아이폰 사용자가 지상파 실시간방송을 보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다. 다양한 실시간방송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등장했지만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은 앱들이 다수였다.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취를 감춘 앱이 많았던 이유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채널수의 한계로 다양한 케이블방송을 접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모바일 실시간방송에 회의적이었던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바일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인터넷과 케이블업체도 경쟁에 가담하는 추세다. 사용자들로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비욘드(beyond) DMB’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KBS는 지난 9월 자사 TV와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앱 ‘K플레이어’를 내놨다. K플레이어는 KBS1, KBS2, KBS24뉴스 등 TV채널 3개와 KBS1라디오 등 라디오채널 7개를 제공하고 있다. K플레이어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를 지원한다.

MBC와 SBS 역시 모바일 앱 시장에 진출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10월 초 모바일 앱 ‘푹(Pooq)’을 출시했다. 푹은 MBC와 SBS의 지상파 실시간방송과 함께 유료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MBC드라마, MBC에브리원, SBS플러스 채널 등을 제공한다. 특히 1Mbps의 고품질 동영상으로 사용자들의 만족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도 필요 없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푹은 조만간 유료인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푹 역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모두 지원한다.



(왼쪽) KBS의 TV와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앱 ‘K플레이어’ (오른쪽) 1Mbps의 고품질 동영상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MBC와 SBS의 모바일 앱 ‘푹(Pooq)



YTN과 MBN 등 뉴스 시청이 잦은 사용자라면 판도라TV에서 내놓은 ‘에브리온’도 주목할 만하다. 에브리온은 현재 50여개의 채널을 PC와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있다. YTN 뉴스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앱이다. 홈쇼핑, 예능 프로그램 등도 포함돼 사실상 모바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실제로 지난 9월 전남 광주에서 열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관 포럼에서 에브리온이 소개되기도 했다. 물론 아직 지상파 채널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한계로 꼽힌다. 판도라TV는 앞으로 제공하는 채널수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앱들은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최근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3G 대비 5배가량 빠른 데이터 전송량을 자랑하고 있다. 스트리밍에만 최적화됐던 3G 시대를 넘어 다운로드가 가능한 4G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방송관련 앱들은 단순히 실시간방송 제공을 넘어 향후 다 시보기 시장까지 넘볼 기세다. 물론 LTE 요금제에서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제외된 것은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3G에서처럼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다 가는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경제



정현수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부 기자
gustn99@mt.co.kr

